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를
나무랄 데 없게 해 주는 것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 주는 것

12/22 월요일

아침의 누림

살전 3:13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 4:23 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 78:8 자기들의 조상처럼 고집 세고 거역적인 세대,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세대, 영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엘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히 2:10-11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빌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신약은 순수한 마음의 문제를 강조한다. 주 예수님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5:8)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권면했다(딤후 2:22). 더욱이 시편 51 편 10 절에서 다윗은 주님께, 자신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 장 13 절에서 ‘순수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이나 ‘깨끗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이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교회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 1 장부터 3 장까지로 구성된 이 책의 전반부의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게 하시리라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0, 19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78 편 8 절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들의 조상처럼 / 고집 세고 거역적인 세대 /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세대 / 영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 언제든지 마음이 올바르지 않을 때마다 영은 신실하지 않다. 이 절은 마음이 영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 준다.

혼은 사람 자신인 데 비해, 마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대표하여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의 마음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 언제나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대표한다. 즉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적 존재의 행동하는 대행자 또는 대사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 4 장 23 절에서 “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 /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보호하다’를 의미한다. 우리가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 마음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 생명의 흘러나옴과 관계된다. 먼저 우리에게 근원이 있고, 그 다음 샘이 있으며, 그런 다음 흘러나옴이 있다.

살아 있는 믿는 이가 되는 것에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모두 관련된다. ... 우리중 많은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을

사용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데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음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 즉 생각이 주님으로 적셔지거나 그분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에만 영을 훈련하는 것이 유용하다.

우리의 마음이 휴면 상태에 있거나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다루심에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셔져야 하며,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와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활동적이 될 것이고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다면, 이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제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감정이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의지가 당신의 의지와 참되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행동하는 대리인인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뿐 아니라 거룩한 상태에

있어서도 나무랄 데 없게 될 것이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206-207 쪽, 메시지 22, 220-2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24;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말함, 3 장

12/23 화요일

아침의 누림

겔 36:26-27

26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27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들을 지켜 준행할 것이다.

시 57:7 제 마음은 견고합니다. 오, 하나님! 제 마음은 견고합니다. 참으로 저는 노래하고 찬송하렵니다.

시 112:7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신뢰하여 견고하다네.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롬 6:19, 22

19 여러분의 육체가 악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딤후 4:10 데마는 현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한 마음 대신에 쉽게 변하고 요동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쉽게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굳건하고 견고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가 쉽다. ...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아침에는 그의 아내에게 매우 다정할지 모르지만, 아침식사 중에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해서 아내를 통명스럽게 대할 수 있다. 이것은 변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서도 변하기가 쉽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쉽게 변하는 이들이며, 우리의 마음도 쉽게 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새로운 믿는 이들의 마음이 고정되고 건축되며 견고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0, 20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 장 13 절은 ‘그래서’라는 말로 시작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상 ‘그런 이유로’를 의미한다. 즉 ‘그래서’는 13 절이 앞서 나온 절들에서, 특히 6 절부터 12 절까지에서 유래된 결과임을 가리킨다. … 이 절들에서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에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들의 사랑이 증가하여 넘치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바랐다.

사람인 우리 모두는 쉽게 변한다. 단지 나이를 더 먹었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유리 조각은 매우 깨지기 쉽다. 오십 년 후에도 그 유리는 여전히 깨지기 쉬울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이다. … 나는 특별히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 어떤 확신도 갖지 않기를 간청한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 왔다. … 매우 자주 나는 누군가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아 왔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마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필요일지라도, 우리에게서는 이것을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며 건축되게 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되고 건축되고 견고하게 된다면, 나무랄데 없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나무랄 데 없는 마음이다.

때때로 우리는 쉽게 변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 역시 쉽게 변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보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변하는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가? 나는 내 자신이 타고난 생명 안에서 쉽게 변하는 사람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내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변화는 부정적인 쪽으로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여러 해 전에 나는 어떤 일들을 내 일기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여러 해 후에 나는 내가 적은 것을 감히 읽지 못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러한 기록을 남긴 이후에도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서 긍휼과 은혜를 받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나무랄 데 없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0, 201-20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 1 장; 위트니스리 전집, 1984 년, 3 권, 하나님의 신약 경륜, 27 장

12/24 수요일아침의 누림

마 5:3, 8

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 10: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히 2: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시 139:23-24

23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24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 13:4, 19

4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19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엡 1:4-5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마음이 생명과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조절되어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실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네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순수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굳어진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순수하지 않은 것은 생각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며, 사랑이 없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고, 평안이 없는 것은 양심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이 네 방면을 처리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수하며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하게 하신다.(생명의 인식, 개정판, 10 장, 204-20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가 완고하거나 거역적이지 않고 복종하며 순종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그분은 우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시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신다(겔 36:26).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가? ... 자주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신다.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환경을 통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치신다. 일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 순수한 마음은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순수한 마음은 또한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극도로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다. ... 순수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원한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이나 기호나 갈망이 조금도 없다. 마태복음 5 장 8 절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외의 것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되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도 이로 인하여 장애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딤후 2:22)

추구해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며 목말라하고

열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애정이 가득한 마음을 의미한다. ... 구약의 아가는 ... 여인이 그녀의 연인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 준다. 이 사랑은 너무나 깊고 변하지 않으며 죽음만큼이나 강하다(아 8:6-7).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각별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또한 주님의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이 각별하게 제시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님은 요한복음 21 장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감정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끌려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그분의 생명이 베드로 안에서 일하고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서 얻기를 원하셨다. ... 만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평안한 마음은 양심 안에 거리낌 없는 마음(행 24:16), 즉 유죄판결이나 비난이 조금도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은 안정되고 평온하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를 통치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 해지도록’(요일 3:19) 모든 거리낌과 유죄판결과 비난을 깨끗이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은 통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할 수 있다.(생명의 인식, 개정판, 10 장, 205-20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인식, 개정판,
10 장; 하나님의 경륜, 개정 2 판, 7-8 장

12/25 목요일

아침의 누림살전 5:23-24, 16-19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19 그 영을 끄지 마십시오.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엡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고후 5:4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7:1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신다. ... 양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신다.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키신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망쳐졌고, 혼은 오염되었으며, 영은 죽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 우리의 온존재는 구원받고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죽음의 요소에서부터 우리의 영을 보존하시고(히 9:14), 타고난 것과 낳은 것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혼을 보존하시며(마 16:24-26), 죄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보존하신다(살전 4:4, 롬 6:6).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고 철저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파루시아가 임할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3, 230-23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영은 세 부분, 곧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영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접촉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접촉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즉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생긴다. 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감각과 지각을 의미한다. 이 직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다면

양심은 우리를 유죄판결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면 양심은 우리가 의롭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영을 보존하는 첫 번째 길은 합당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비교 살전 5:16-19). ...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을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의 영은 계속 살아있게 된다.

여러분은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의 영을 죽어 있는 상태로 남겨 두는 것임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의 영을 죽어 있는 상태로 둔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보존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을 보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린도후서 7 장 1 절에서 발견된다. ...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이 절은 우리가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더러운 사진과 같은 악한 것들을 보는 데서 지켜야 한다. 그와 같은 사진들은 우리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더럽힌다. 이것은 내가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이다. 1933 년에 나는 처음으로 상하이(上海)를 방문했다. 그 당시에 두 개의 집회소가 있었는데 ...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 상하이 동부에서 북부까지 가는 데 전차로 한 시간 이상이 걸렸다. 전차를 타고 갈 때 처음 몇 번은 대로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광경을 두리번거리며 구경했다. 그러나 집회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나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길가에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을 구경하다가 나의 영이 죽어 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전차를 타고 달릴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할 때 나의 영이 보존되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의 영을 보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상하이 북부에 있는 집회소에 도착했을 때 나의 영은 살아 있었다. 나는 참으로 나의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봄으로써 오염된다면, 우리의 영은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죽어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먼저 주님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예로 들어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삼일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영을 죽어 있음과 오염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3, 232-23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과정을 거친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 1, 3 장

12/26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12:1-2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빌 1:8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 2:5, 8, 13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엡 3: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4:4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천 개의 작은 방패와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다오.

아 7: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으며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에는 주요 세 동맥이 있다. 이 동맥들은 혼을 이루는 세부분으로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다. ...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주요 세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는 길은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는 것이다. 체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우리가 자신의 결점과

실패와 패배와 실수와 잘못과 죄들을 자백하기 위해 얼마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4, 236-23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사고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자백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 ... 우리의 생각은 오물로 가득하다. ... 우리의 생각이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을 자백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자백할 때, 이 동맥을 막고 있는 것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자백하는 동안 우리는 여러 상황에 관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이 얼마나 천연적인지를 자백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이 천연적이라는 것에 대해 느낌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주님, 저를 비추어 주시고 저의 생각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생각을 온전히 당신의 빛 안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는 빛 비춤과 드러난 것을 따라 자신의 생각 안에 있는 문제들 을하나씩자백해야한다. 예를 들어 ... 여러분이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나 가정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천연적이고 조금도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드러내신다면, 여러분은 즉시 이렇게 자백해야 한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저의 이해는 완전히 천연적입니다. 주님, 저를 이러한 천연적인 이해에서 구출해 주시고 제게서 그것을 없애 주십시오.” ...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자백하려면 긴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관해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그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신성한 현미경 아래에서 점검받는 것과 같을 수 있다. ... 특별히 우리는 자신이 매우 거역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해 전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음을 보여 주실지 모른다. 그런 다음 주님은 계속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여 주실지 모른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백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빛 아래, 곧 그분의 드러내심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드러내신 자신의 의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백할 때, 우리의 의지라는 동맥에서 막힌 것이 제거된다.

또한 감정이라는 동맥에서도 막힌 것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을 때 깊이 상심할지도 모른다. ... 우리는 자신이 많은 경우에 사랑해야 할 것은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소의 빛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존재에서 가장 추한 방면이 감정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모두 전적으로 천연적일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자신이 기쁨과 슬픔을 표현했던 방식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이 자주 천연적이고 육체에 속하고 심지어 육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주요 세 동맥에서 막힌 것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두가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 '하천들'에 있는 모든 '오물'은 파내어지고 제거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4, 237-23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6;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54 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8 장

12/27 토요일

아침의 누림

살전 4:1-4

1 형제님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남은 몇 가지를 더 당부하고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서 배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2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압니다.

3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고,

4 각자 거룩하게 됨과 존귀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릇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요일 1:5-9 (5, 7)

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6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9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보존하는 법을 아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죄는 우리의 몸을 손상하고 부패시킨다. ... 우리의 몸은 '죄의 몸'(롬 6:6)이다.

우리의 몸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옛사람을 따르지 않는 생활, 즉 결코 우리의 혼을 따르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 로마서 6 장 6 절은 "...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4, 24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혼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섬기는 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혼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 죄악된 것에는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주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눈을 악한 사진들에서 멀리해야 하고, 우리의 귀를 더러운 것들에서 지켜야 한다. ...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오염시키고 손상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듣는 데서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바울은 음행을 멀리하라고 당부함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살전 4:3).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그릇 곧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이다. ...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무엇이든 죄악된 것에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의 세상은 오염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 부모들은 자녀들, 심지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이러한 오염시키는 요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몇몇 부모들은 자녀들의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 시험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부모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장래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을 돌보며 이러한 길을 좇은 부모들은 틀림없이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욕과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아직 변형되지 않고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존해야 한다.

이 더럽고 오염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2 절부터 24 절까지에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이 신성한 운행과 협력하는 것을 본다. 12 절부터 22 절까지에서 우리는 영적이고 분별된 생활을 하는 믿는 이들의 협력을 본다. 23 절과 24 절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운행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협력하는 방법은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 영을 고지 않으며, 교회 집회에서 신언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동역한다면 우리의 영은 죽어 있음에서 보존될 것이고, 우리의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오염되는 것에서 보존될 것이며, 우리의 몸은 이 시대의 더러움에서 보존될 것이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믿는 이들을 위한 책인 데살로니가전서를 쓸 때 바울이 목표로 한 것은 그들이 교회생활을 위해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4, 240-24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12-13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2 권, 육체와 영, 1 장

12/28 주일

아침의 누림

행 24:16 이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롬 6:6, 12, 14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4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롬 8:6, 1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말 2:15-16

15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분께서는 영이 넉넉하신데 어째서 하나이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누구도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16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혼하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배신하지 마라.

고후 2: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살전 5: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